

어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물이 응답되는 새벽이 되기를!

저는 올해로 특새가 37년째입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은혜 주신 주님께서 24차 가을 특새 응답의 포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란한 가을비가 지나간 새벽,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 제물을 품은 채
안아주심의 본당으로 달려온 성도들을 바라보며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영가족들이 평생 품어 온 기도 제물,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물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상한 몸과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자녀들의 앞날에도 믿음의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압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던 아곱에게
동터 오는 아침의 여명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번 특새에 참석하는 모든 영가족이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위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홍해는 갈라지고, 먹구름은 물러가며,
거대한 장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맞춤형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어,
은혜 게시판의 글처럼 깊은 상처는 깊은 말씀으로 치유받고,
높은 교만은 높은 찬양으로 낮아지고,
뜨거운 욕망은 뜨거운 기도로 정돈되어 인생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후 2026년 10월 19일 주 안에서 따뜻이 오정현 목사
특새 은혜게시판 중에서

사진: SRC

TODAY'S
PRAYER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가족이 새 힘을 얻어 비상하게 하옵소서.

- 1 주여! 새벽을 깨우며 자발적 고난의 자리에 나아온 모든 영가족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새로운 지평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 2 세우신 강사님(김바나바 목사, 마이크 리브스 목사)과 오정현 담임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감절의 영감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메마른 영혼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3 사랑의교회에서 시작된 은혜의 물결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로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사, 복음의 생명력이 온 땅에 충만하여 열방이 함께 누리는 진정한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히 10:10-20)

김철수 선교사(GMS 순회선교사)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와 교만, 자기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죄성과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초청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어떤 종교도 상상할 수 없는 겸손과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죽으심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어떤 종교나 율법도 제공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 (행 13:36)

오스 기니스 박사(‘소명의 저자’)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특별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와 무신론, 세속화로 인해 기독교 신앙은 현대 사회의 중심부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현대성이 던지는 도전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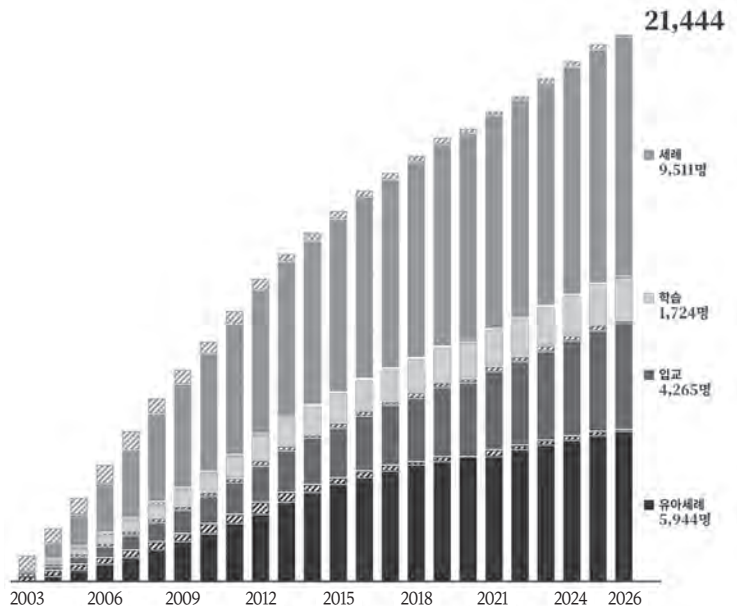
불가능을 가능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변곡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유아세례·입교·학습·세례

21,444명

유아세례 5,944명, 입교 4,265명, 학습 1,724명, 세례 9,511명

2003년부터 21,444명이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21,444명이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4대를 이어가는 수선대후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써내려간 부흥의 새 역사



김경태 집사(제51기 제자훈련생)

마지못해 이끌려 참석한 인생 첫 특새가 끝난 주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 앞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찬양대와 제자훈련으로 섬기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는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준 형제(대학8부)

의정갈등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를 제자훈련의 자리로 부르셨고,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에서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의대 공부와 병행하며 제자훈련을 위해 대전까지 통학하면서 육체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새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신뢰하며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의사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사진 찍으시고 인화하신 거룩한 불꽃



은혜의 실체가 있는 간증의 현장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주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가족이 새 힘을 얻어 비상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강단초대

*오늘: 남·여·여직장인 순장반

*내일: 제자, 사역 훈련생

강사소개

*오늘: 김바나바 목사 (뉴욕 퀸즈한인교회)

“어두운 동굴에서도 당신은 찬란하라!” (시 142:1-5)

마이크 리브스 목사 (유니온 신학교 총장)

“여호와와는 결코 작은 신이 아니십니다!” (시 50:12-15)

*내일: 이용규 선교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망해도 계속되는 약속” (왕하 25:27-30)

데이비드 가너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시 119:169-176)

주차안내

• 교회주차장

• 마젤스타시티 지하 6,7층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30분까지

• 서초현대주차장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30분까지

• 국제주차장 월-금: 3시-7시까지, 토: 3시-9시30분까지

은혜게시판 활용

특새 때 받으신 은혜를 ‘은혜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450번 작성자분들께는 ‘특새굿즈: 특별제작마그네틱’, 451~600번 작성자께는 후집회 이후 ‘특새 굿즈: 특별제작파우치’를 드립니다. (장소: 남측1층 로비)



뜨거운 기도 - 년센스퀴즈

다음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에 담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 다니엘의 세친구들 풀무불 속에서 했던 기도
2. 출애굽때 불기둥에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3.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드린 기도
4. 솔로몬이 일천번제 때 드린 기도

답:

높은 찬양 - 이모지 퀴즈

- 1.
- 2.
- 3.

특새
종합선물
세트

깊은 말씀 - 암송 빈칸 채우기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_____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빌 4:13)

내게 능력 _____ 할 수 있느니라

2026 가을 특새 출석부

둘째날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
변화의 시간”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제 308호 주후 2026년 10월 20일(화)

발행인 오정현

기획 특새 TFT, 커뮤니케이션실

발행처 사랑의교회 www.sarang.org



귀가 셔틀버스
출발시각은 6시 25분입니다.

은혜게시판



주신 은혜
기록하여
크신 능력
간직하자



10개의 달항아리를 찾고, 색칠해보세요

은혜게시판 포토제닉

